| 현불 논단 |

비우면 스스로 밝아진다



맹난자
수필가

홍콩스타 주윤발의 전재산 기부
인생서 중요한 것은 돈 아니다
"내 꿈은 행복해 지는 것" 강조

마음의 평화는 脫집착서 비롯돼
'虛心自明' 비워야 비로소 밝아져

준다는 생각도 보답 바라지 말고
머뭇거림 없이 흔쾌히 보시하라

영화 '영웅본색' '와호장룡' 등으로 알려진 홍콩스타 주윤발이 자신의 전 재산인 59억 홍콩달러(약 8100억 원)를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내면의 평화를 얻고 평온한 태도로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라던 그의 진솔한 발언이 반가웠던 것은 미국에서 부자가 된 친척 한 분이 노후에 병고와 마음의 평화를 찾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어서였다. 애써 모은 돈만 남겨놓고. 그렇다면 '내면의 평화를 위해 물질은 독(毒)이 되는 것인가' 는 생각해보게 된다.

오스트리아 철강 재벌의 아들인 철학자 비트켄슈타인도 막대한 유산을 사회에 기부하고 독신으로 평생을 검소하게 지내다가 생을 마감했다. 위로 셋이나 되는 형들의 자살을 목격하고 제1차 세계대전 중 유태인으로 겪은 심적 고충, 재산이든 무엇이든 간에 거추장스러운 것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었던 것일까? 다 버리고 홀가분해진 그는 시골학교 교사로, 병원 잡역부로 정원사로 일하며 노르웨이의 어느 호숫가에 오두막을 짓고 저술에 몰두했다. 〈논리철학논고〉로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다. '멋진 삶을 살았다' 는 최후의 말이 인상적이다.

"돈은 행복의 원천이 아니라"며 "내 꿈은 행복해 지는 것이고 보통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던 주윤발은 한 달 용돈으로 약 12만원을 쓰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할인매장에서 주로 옷을 구매하고 허름한 맛집을 자주 찾는다고 한다. 보통 사람의 평범한 일상에서 행복을 찾는다는 주윤발. 그는 극중에서 여러 배역을 연기하면서 인생은 한바탕 꿈이며 연극이며 환(幻)이라는 통찰을 얻지 않았을까?

'나' 란 비실체적인 오온의 무더기가 모인 일시적 존재, 그 공(空)함을 비추어 보고 일체의 고액에서 벗어나 저 언덕(니르바나)에 이른다는 가르침. 그러고 보면 마음의 평화란 물질과 나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고서는 한 발자국도 가능하지 않다.

중국의 방거사(방온)는 마조도일의 문하에서 크게 깨쳤다.

"만법과 짝하지 않는 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네가 한 입으로 저 서강(西江)의 물을 다 들여 마시거든 그 때에 일러주마."

언하에 깨친 방거사의 게송인 '시방 함께 모여들어/ 저마다 배우는 무위(無爲)/ 그러나 여기는 선불장(選佛場)/ 마음 비워(心空) 급제해 돌아가노라' 에서 무위(無爲)와 심공(心空)을 주목하게 된다.

마조의 활구에 방거사는 마음을 비워(心空) 그 난관을 뚫어낸 것이다. 불법을 만난 뒤 방거사는 재물을 실어 동정호에 내다버렸다. 출가하지 않은채 처자를 이끌고 오두막을 전전하며 조리나 대바구니 같은 죽제품을 만들어 생계를 이었으나 가족은 아무 불평이 없었다. 앉아서 죽고(坐亡) 서서죽는 것(立亡)을 자유자재로 펼쳐 보인 가족이었다.

"마음을 기르는 데에는 적은 욕심을 적게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적어지고 또 적어져서 적어질 것이 없는 데까지 이르면 마음이 비고 신령스러워진다"는 이지함의 말씀을 나는 금과옥조로 삼고 지낸다. 기심허명(其心虛明)이다. 마음(虛靈)이 비면 스스로 밝아진다. '허심자명(虛心自明)' 이다.

옛사람이 가득 찬 것을 경계(滿招損)한 것도 그 때문이리라. 주되 준다는 생각 없이, 돌아올 보답을 바라지 말고, 머뭇거리는 마음 없이 흔쾌히 보시하라. 허심자명으로써 해와 달과 더불어 그 밝음을 합할 수 있을지니 그래야 참다운 불자라 할 것이다.

社 說

선학원, 설립 조사 왜곡 안 된다

일제강점기 사찰령이라는 각종 탄압에 굴하지 않고 식민지 불교정책을 타개하기 위해 불교지도자들이 힘을 모아 설립한 선학원. 100주년을 3년 앞둔 현재, 선학원이 설립조사에 대한 왜곡된 조명을 거듭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우려를 낳는다.

선학원미래포럼이 개최한 2018 워크숍에서는 한국불교 근현대사 전문가들이 선학원의 지나친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과 역사적 오류를 강하게 비판했다. 요지는 선학원 설립조사가 아닌 한용운을 대대적으로 선양하면서, 진정한 설립조사인 만공 스님은 조명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수감 중이던 한용운을 설립조사로 표기하고, 선학원 건립 취지를 한용운 출옥에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밝힌 선학원 측 설명에 역사 전문가들은 불쾌함을 숨기지 않았다.

선학원의 이 같은 만해 한용운 선양은 수덕사 출신의 만공 스님의 업적을 가리기 위함이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한 번쯤 돌아봐야할 문제다.

앞서 선학원과 수덕사는 간월암 · 정혜사 소유권을 두고 수년간 법적소송을 벌였다. 무엇보다 선학원 측은 대법원까지 진행된 재판에서 모두 패하며 고배를 들이켰다. 결국 수덕사 중창의 핵심 역할을 한 만공 스님을 선학원이 의도적으로 역사에서 배제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모양새다.

선학원은 설립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사장은 여직원 성추행 의혹으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미온적인 이사회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제라도 역사를 바로잡고 정상화에 나서길 바란다.

불자 자원봉사 열풍 일으키자

사찰이 그동안 개별이나 친목모임 차원으로 진행하던 봉사활동을 사회봉사 시스템과 연동해 눈길을 끈다. 주먹구구식 봉사활동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필요한 곳에 분석을 통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정착되길 바란다.

조계사는 10월 18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함께하는 행복나눔 가피 자원봉사단 발대식' 을 개최했다. 이날 눈길을 끄는 것은 자원봉사단뿐만 아니라 VMS시스템이 사찰 최초로 도입됐다는 점이다.

VMS는 사회복지 봉사인증관리시스템으로 자원봉사자에 대한 봉사실적 인증 확인서 발급과 조회를 가능케 하고 우수봉사단과 봉사자를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표창 대상자로 추천, 봉사활동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VMS가 되면 사중 봉사단체에서 6개월 이상 활동 경력이 있어야 하며 자원봉사 교육도 수료해야 한다. 하지만 외부에서 이러한 경력을 인정해주기에 이 경력을 활용해 다른 분야에도 진출이 가능하다.

그동안에는 조계종자원봉사단이 VMS에 등록되어 있었다. 대한불교조계종자원봉사단은 종단을 대표해 국제구호, 긴급재난구호와 같은 큰 일을 담당했다. 이제는 사찰의 자원봉사자들도 종단의 정규 자원봉사단과 같은 자격과 권한을 받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불교에서는 '보살행' 을 강조해왔다. 자비와 봉사는 불자의 당연한 수행 수단이었다. 사회 곳곳에서 불자들은 보살행을 펼쳤다.

이제 이런 불교계 정서를 보다 체계화해 사회에 알리고 불교의 위상을 높이는 일만 남았다. 더욱더 서로 독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자원봉사계 자체에도 또 다른 원동력이 조성되길 바란다.



특별기고
법진 스님 태안 보타락가사 주지

중생 무차별 발원, 통일 불사 지름길

아미타불의 사십팔원 가운데 세 번째로 '동진금색원(同眞金色願)이 있다. 이것은 모든 중생이 차별 없이 무상복락을 이루어 달라는 발원을 담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온통 통일에 대한 기대감에 마음이 들떠있다. 남북으로 갈려 대치 상태에 있는지 70년이 다 되어 비로소 통일의 빛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에겐 과거 수많은 통일의 조짐이 보였었다. 1972년 이후락 前 중앙정보부장이 밀사로 평양을 방문해 김일성 주석을 만나고 돌아온 후 서울과 평양서 동시에 공동 성명이 발표됐다. 이때도 온 나라가 통일이 된 것처럼 통일 열기로 가득했다.

1998년에는 故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이 6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소 1001마리를 몰고 육로로 판문점을 통해 북한에 간 일도 우리 기억속에 생생하다.

당시 소를 왜 1천마리면 천 마리지 천 한마리냐는 주위의 질문에 정주영 회장은 서슴없이 "하나는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에 단절되지 않고 계속 되게 하기 위한 생각에서였다"고 즉답했다.

하지만 이 좋은 분위기들은 그때마다 오래가지 못했다. 2016년 북한의 핵 실험과 로켓발사를 계기로 한반도는 격변의 장으로 변했으며, 남-북간 대결현상이 뚜렷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올해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서 열린 역사적인 남북회담으로 한반도는 다시 평화의 분위기를 만끽하고 있다. 3차에 걸친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이제 한반도의 눈과 귀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으로 쏠려있다. 가장 큰 기대는 비핵화일 것이다. 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이제 전쟁의 공포로부터 해방될 것이다.

이에 발맞춰 북한과의 종교 문화 교류에도 불교계가 앞장서야 한다. 불교는 남북 공히 가장 중요한 민족문화유산이다. 북한서도 불교는 우리 민족이 어려울 때 팔 벗고 나선 종교이자, 고락을 함께한 종교로 남아있다. 우리 민족이 무궁화처럼 인욕하는 힘이 바로 불교에서 나왔다. 남북불교계는 현재 법회의식과 교리 또한 거의 같다. 이는 조금만 교류가 된다면 함께 융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반증도 된다. 이미 불교는 한반도 평화와 민족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외적, 내적 여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실천만이 남은 셈이다.

언제나 남북통일이라는 기대감이 커질 때면 어김없이 분단의 비극을 실감케 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것을 계기로 대치 상황은 극에 극을 달리고, 국민들이 항상 뒤에서 "북한이 그러면 그렇지"하고 개탄한다. 그러나 통일에 거는 기대와 희망만큼은 거의 똑같다. 아니 반세기가 지나면서 더욱더 절실해지는 것 같다.

그러면 우리는 왜 수없이 실망하고 또 내려 놓으면서도 남북통일을 그토록 열망하고 바라는 것일까? 한마디로 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인가? 부처님 말씀으로 답과 의미를 대신한다.

부처님께서는 〈사십이장경〉 제29장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뭇 중생은 권속과 애욕 등에 걸려있는 것이 감옥보다도 더 무섭다. 감옥은 언젠가는 벗어날 수 있지만 혈육과 권속에 대한 욕망과 정은 죽어도 오히려 달게 아는 고로 고통에 쇠사슬인줄 알면서도 벗어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무섭도록 끈끈한 정을 우리는 70년이 다 되도록 이산의 아픔을 안고 지냈다. 빨리 그 고통의 쇠사슬에서 벗어나는 날이 빨리 오길 부처님전에 간절히 발원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51)405-9402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대 구 지 사 : (053)768-8008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악령, 귀신 잡는 스님이 있어 화제

憑依(빙의)와 귀신병(鬼神病)

은 자신의 생각 의지 마음과 상관없이 악귀에 조종 당하여 자신과 가정은 예기치 못한 행동으로 끔직한 사건으로 비화되거나 또는 집안이 망신과 수치로 황폐화되고 사회적으로는 각종 사건사고에 연관되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본인 또는 가족 중에 다음과 같은 현상들이 있으면 빙의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으며, 청정 수월도량 자비사와 인연이 되어 가정에 사랑과 건강함과 평화가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빙의와 귀신병의 주요 증상

* 혼자 중얼거리고 방에서 누구하고 대화 하듯이 씨부렁거린다. * 환청이 들리고 신경이 예민하여 고함을 지르고 발작을 일으킨다. * 공황장애와 과대망상 우울증으로 자살 하고픈 마음이 자주 생긴다. *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어깨가 한 짐이 되어 무겁고 양쪽 팔과 다리와 허리가 찢어질 듯이 아프다. *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하는데 항상 머리가 무겁고 아픈 두통이 계속 되고 몸 전체가 몸살 난 것처럼 고통스럽다. * 평상시는 순하고 순한데 술만 마시면 난폭해지고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고 이상한 사람으로 바뀐다. * 무엇에 홀린 듯이 술을 연속하여 밤새도록 마시거나 또는 줄 담배를 피운다. * 몸속에 귀신이 드나드는 느낌이 들고 이유 없이 몸이 아프거나 잘 나가든 집안이 갑자기 몰락한다. * 술은 마시면 말과 방언이 튀어 나오고 본인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평상시와 다른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한다. * 누가 집에 들어와서 음식에 약을 타서 먹지 못하게 한다는 말도 안되는 말을 한다거나 성격이 포악하고 욕을 잘하는 경우 * 돌발적인 행동과 발작을 일으키고 자꾸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고 한다거나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 경우. * 신내림굿을 하였는데 도리어 더 이상한 사람으로 변했다. * 신의 제자가 되기 위해 신 내림굿을 하였는데 신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원상복귀를 원하고 있는 사람. * 돌아가신 조상이 좋지 않은 모습으로 꿈속에 자주 나타난다. * 계속하여 악몽을 꾸거나 헛것이 보이고 귀신이 보인다. * 귀신하고 사랑을 한다. * 입산수도 하다 오히려 잡귀에 씌어 고통 당하고 있다. * 신병과 귀신병으로 고생하고 있다. * 집안에 연속하여 대형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가족 구성원이 아무 이유 없이 줄초상을 당한다. * 종교계통의 일을 하는데 빙의 되어 있다. (예를 들면 자신이 부처이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 * 큰 충격을 받아서 정신이 나간 것처럼 행동한다. * 가족 중에 정상적이지 못하고 누가 봐도 이상한 행동을 한다. * 불교, 기독교 등 종교와 상관없으며 귀신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반드시 해결되며 국내와 해외에 거주하여도 본인이 직접 오지 않고 가족이 와도 무방합니다. **위와 같은 증상이 있으면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청정수월도량 자비사와 인연이 되어 잡귀 마장 사탄 중엄신 조상신등 악마 잡귀의 무거운 짐을 벗어 가정의 건강함과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새롭게 태어나길 바랍니다.**

그 어떠한 악령귀신도 불법승으로 단 한번에 제도하여 고통의 무거운 짐을 내려 놓게 하며 심신의 안녕과 평화를 찾게 합니다.

다른데서 몇번이나 했는데 안되더라 하는 마음을 버리시고.....

반드시 해결되는데 믿지못하고 의심하고 망설이는 것은 또 뭐꼬!!!

귄 대한불교 자 비 사 예약 상담전화 010-8600-7409 (서울 강남구 대치동 2호선 선릉역 지하철 1번 출구)